

생성의 건축, 그리고 되어지는 건축

Becoming Architecture and Architecture Became

김승귀 / 경원대학교 실내건축학과 겸임교수
by Kim Sung-Guy

들어가는 글

은평구 역촌동의 다옥한 주택가 한가운데에 새 교회가 들어섰다. 이리저리 굽은 골목길을 한참을 찾아 마침내 제일영광교회라고 씌어진 현판이 눈에 들어 왔다. 마치 내집 같이 아늑한 느낌의 첫인상을 맨 침으로 얻었다. 기분이 좋았다. 하지만 기분으로만 비평이라는 글을 작위하기에는 내가 가진 편협한 논리성의 우리속에서 허물거리는 반항들이 좀처럼 가지지가 않았다.

참으로 우매한 인식이다. 고작의 짧은 식권이 주는 테두리로 지극의 사람이 하는 추상의 감흥을 이런 저런 이유로 정의(定議)를 내리고 진위를 가린다는 것 자체가 어리석은 일인지도 모른다. 한 손에 쥐기조차도 힘든 두꺼운 사전 속에 빼곡이 적혀있는 수많은 정의(定議)내림들이 과연 우리의 인식을 돕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일종의 인식놀이 같은 유희의 희롱은 아닌지 하는 의구심이 들었다. 무상(無常)스럽다. 숨이 가쁘다. 그런데도 이왕에 내게 맡겨진 글의 책임을 해야하는 의무에 하는 수 없이 그동안 질기게도 미루어 왔던 지면 채우기 글 박음질을 시작하기로 했다.

바라건대, 필자의 부끄러운 글을 훑어 내리면서 구태여 정의(定議)를 찾아 헤매기보다는 하나의 교회를 그려 내어줬음 하고 바란다. 그리고 연상되는 그 교회가 나의 진위로 판독되기보다는 '나로 되어지는' 교회 한 채가 만들어지기를 바란다. 그것이 감히 이야기하건대 꼭재 환소장이 곧잘 이야기하는 형(形)과 상(象)의 건축을 바라보며 판단하는 첩경(捷徑)의 한가지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



제일영광교회

Introduction

There is a new church in a dense residential area of Yeokchon-dong, whose name plate we can see after a walk through the town's swirling paths. It had a home-like feel to it, which made me delighted. This emotion, however, could not be the basis of my review, since the logical self, though limited, begun its own function within my mind. It may well be absurd to define our many abstract emotions in certain categories our minds have created, and all the words contained in our invention of a thick dictionary may be, contrary to our belief, an obstacle to our recognition of the world.

It is my hope that these words of criticism should not be sought for definitions. Instead, it should hopefully draw in the minds of the readers a picture of a church - a church that isn't interpreted through my judgement but one made through 'oneself.' This may be what architect Kwak J-hwan, creator of this work, often has called chumkyung, judgement made by looking into an architecture of 'form' and 'figure.'

A House for Living and a House for Praying

What is it that sets this church apart from other religious facilities? First of all, it is located among the houses of various shapes of the town - a town church, indeed. This pleasant

사는 집과 기도하는 집

이번의 교회가 여타의 것과 우선적으로 차별되는 것은 무엇일까? 물론,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이 그곳에 담겨져 있었지만, 그해보건대 그것은 오밀조밀 뒤섞인 우리 동네넙에 있는 동네 교회라는 점이 아닐까 싶다. '동네 교회', 이름이 즐겁다. 단박에 친근감이 들면서 이런저런 모습이 떠오른다. 하지만 간혹은 그것이 '교회 동네'로 탈바꿈시키는 억지의 힘(?)이 느껴지는 것도 사실이다. 그것은 건축이 유추시키는 맥락(context)의 질과 형식주의(formism)의 창조라는 양자적 선택이라는 적당적(適當的) 선택의 고민일 것이다. 그러면 여기의 교회는 과연 어느 수식어가 그 모습을 그려내는 교회의 「터」 일까?

일면, 필자의 다분한 주관에서 도안되는 청사진일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그 양쪽 전부도 아닌 오히려 그 둘의 틈새에서 「결국」으로 생성되어지기를 머무르고 있는 것은 아닐까?

자칫 이것을 오역하기를, 그러면 도대체 특이한 것도 없는 그런 평범한 교회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것이 바로 이 교회가 가지는 특이성일 수도 있다. 즉, 구조의 분절과 절제로 동네 기슭이 가진 맥락의 질을 상승하게 해준다는 것이다. 이른바, 타자(otherness)화된 교회의 분절된 조형이 동네의 불규칙스런 이영들을 그대로 드러내면서 이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임상적으로 말해, 이번의 교회건축에서는 들려준 민원의 소리와 교회건축주, 그리고 건축가의 고민이 나름대로의 해결책을 찾아가려 노력하고 있는 듯 하다. 그러한 것은 교회가 가지는 공간의 프로그램에서도 여실히 잘 나타나져 있는 것 같다. 우선 이 교회는 그 어느 곳에서도 출입이 가능하도록 계획되어 있다. 특히 교회 왼쪽에 서있는 기단은 외부에서도 접근함이 막힘이 없어, 동네 골목길으로 들어섰다가 울적한 마음에 한번쯤은 그곳에 훌쩍 올라, 불편한 심기를 다스려 봄직도 하겠다. 그리고 교회 본관 앞면에 마련되어져 있는 데크와 그 앞의 공터에서 뛰어노는 아이들이 즐거운 놀이터를 가지게 된 것 같다. 동네사람들의 기우가 한결 걸히겠다.

그러면서도 교회의 신성함과 예배, 친교, 행정사무, 선교, 교육 공간을 위한 현대교회기능공간의 구현적 노력이 무시된 것은 결코 아닌 것 같다. 대지가 가진 수직적 층을 십분 고려하여 기단 끝에 내려진 예배당의 지하층 출입구가 배면부의 천창으로 이어진 빛돌림으로 교회의 신성함을 표현하려 한 것 같다. 그리고 회중석(Nave)의 동선과 성가대의 동선을 따로 두어 교회 예배공간의 기

expression is appropriate to deliver the sense of friendliness it provides. In some instances, however, the church discloses aspects where it seems to try too hard to become the town church, which may have stemmed from the architect's choice between the quality of the context and the creation of form. Then what could be best to justly describe the position of this church in this situation? It could be a subjective view, but isn't the church content with being inside the crack between the two opposing values, awaiting the final result to appear?

This could in turn be misinterpreted as valuing this church with no characteristic at all. But on the other hand, this point may well be the very characteristic of this work - through the articulation of the structure and modesty, it enhances the quality of the context in this town hill. The so-called otherness of the church's articulated form is in smooth connection to the irregular shapes of the region's houses. By impression, this church seems to be presenting a solution to the requests of the users and the client, and thoughts of the architect combined. This fact can also be read in the organization of its space programs. To start with, the church is open to all directions, from which it can be entered. Especially, the base on the left of the church can be approached without any obstacles, inviting anyone who needs a place to calm down his/her uneasy feelings. Children, now able to play in the deck and plaza in front of the church, are also given, as well as their parents, a meaningful present.

This does not mean that the holiness or the various basic functions of the church are neglected. The chapel, whose entrance is made to the underground in reflection of the site's vertical layers, is linked to the clerestory and together add to the weight of the church's atmosphere. Also, the circulation of the nave is separated from the path of the choir, and succeeds in fulfilling the functional and spiritual demands of the chapel space.

In fact, it is very difficult for the architect to suggest some kind of newness to church architecture, since it is deeply drenched in religious conservatism. It is further unlikely that he can provide an alternative program to the chapel space. The only choice for the architect is to choose from the various examples throughout history which follow the basic composition

능과 만족을 동시에 이루고자 하는 노력도 엿볼 수가 있다.

사실, 교회의 종교적 보수성안에서 건축가가 취할 수 있는 새로움이라는 것은 무척 어려운 일이다. 그래서 예배 공간 프로그램의 새로운 개발이라는 것은 과히 엄두가 나지 않는 일일 것이다. 회중석(Nave), 성가대석, 강단(Chancel)으로 주로 구성되는 예배공간의 계획에서 건축가가 취할 수 있는 입장이란 미리 정해진 보기에서 그 범례를 찾아야만 하는 한계적 상황이 빈번하다. 그래서 인지, 다시금 건물 왼편에 자리하고 있는 사각의 기단이 더욱 더 눈에 들어온다. 계단을 오르면서 일정한 시야의 가림은 회자로 하여금 얼마간의 기대감과 보상심리를 충족시켜 주고 자극하고 있는 듯하다. 여타의 마냥 우뚝 선 교회의 꼭대기의 멀어짐과 이질감과는 달리 여기에서는 그것을 한층 가깝게 만들어 주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진정한 교회의 신성함이 무엇인가에 대해 이면적 질문을 던져주고 있는 것은 아닐까?

생성의 건축

곽재환소장의 건축적 화두는 무엇일까? 십수년 동안 그가 보냈을 건축적 사유에 비한다면 지극히 부족한 필자이지만, 그가 보낸 세월과 고민이 있으므로 그냥 스쳐 지나 갈 수도 없는 노릇이다. 난색이다. 한번의 그와 만남과 글 몇 편을 읽고 그가 보낸 세월을 넘기기에는 다분히 작위적이 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건축이라는 객관과 주관의 경계가 지극히도 모호한 것에 단지 주관적인 잣대만을 들이대는 형국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선불리 말하기가 망설여진다. 하지만, 이른바 그가 이야기하는 형과 상의 건축, 건축의 영혼들... 그것은 어찌면, 지금 필자가 난색하는 그런 고민에서 시작되었을 법하다.

즉, 그는 그것으로 객관과 주관의 이분법적 벽을 넘고 싶은 바람일지도 모르겠다. 실제로, 그 스스로가 「형상은 주관과 객관이 작성한 좌표점이다」라고 적고 있다.

여기에 필자는 그것을 「생성」이라는 단어로 표현해 본다. 물론, 그것 또한 단지 필자가 가진 주관의 근거적 사유이겠지만, 필자가 가진 글 목적이 읽는 이들에게 있으므로 될 수 있으면 그들에게 한편의 그림이라도 연상시켜 주는 게, 비록 일말의 치부 속일지라도 내 말은 소임을 다하는 것이라 생각된다. 솔직히 말하건대, 필자로서는 그가 이야기하는 추상의 감흥은 확연히 알 수가 없는 게 사실이다. 하지만 이 교회를 보고 그것이 어렵듯이 연상

of the nave, the choir and the chancel. This acknowledgement, however, directs our attention to the base on the left, mentioned above. It partly blocks an approaching person's view, inducing him/her to have pleasant imagination of where the stairway will lead to. Quite different from other churches which are characterized by the distanced and awkward towers, this one seems to be close to its users. It proposes a new dimension to the age-old concept of the church's holiness.

Becoming Architecture

What is the main subject of architect Kwak's works? Since many decades of his career must have given him insightful view on the world of architecture, it would be unauthentic of me, with relatively less years of experience, to judge his decisions. Though I have had the chance of coming across some of his writings and have met him once in person, there is the intrinsic danger of laying my own subjective point of view on something where the line between the objective and the subjective can only be obscure. I am therefore reluctant to define anything. On the other hand, the main subjects of Kwak's thoughts - the architecture of form and figure, the spirits of architecture, etc. - may have stemmed from the very problems which I now face.

That is, he may have wished to overcome the dichotomic wall between the object and the subject through this problem. In fact, he has once written, "a figure is a point in the matrix of the subjective and the objective." I would like to express this in the word "becoming." There is only my subjective point of view to back up my suggestion, but considering that my task is to provide the reader with an image in the least, I believe my intention can be justified. Frankly, I cannot clearly comprehend what Kwak means when he speaks of "empathy of abstraction." But on the other hand, a visit to this church provides an obscure hint to that question. It is true that Kwak's first remarks on form and figure reminded me of the theory of Alan Colquhoun, but I believe it will be more sincere to approach these issues and the becoming of architecture through an open mind than to rely on a

이 되는 것도 사실이다. 그리고 맨 처음 그의 건축적 화두를 들을 때 문득, 서구의 건축이론가인 알란코쿤이 언급했던 형(form)과 상(figure)에 관한 이론서가 답습처럼 연상이 되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퀴스레 여기에 걸맞지도 않을 서구 건축 아카데미즘으로 치장하는 멋스러움에 도취되어 우를 범하기보다는 답습한 마음으로 그의 형과 상의 건축, 생성의 건축이 무엇인가 골똘히 생각해 본다. 그것은 아마도 단지 건축의 형태에만 그 의미가 있지는 않을 것이다. 그가 고민하는 주관과 객관의 좌표는 사람들을 분명히 포함하고 있을 것이다. 이를테면, 사람이 느끼는 것이 가장 객관적이고 그 대상물인 건축이 다분히 주관적일 수 있다는 역설적인 타자 화에서 그 생성의 원리를 찾을 수가 있지 않을까 싶다. 그래서인지 조각조각 분절되고 절제된 교회의 파편 덩어리가 주변의 맥락에 흡수되어 다시금 모아지는 것 같다. 즉, 주위의 맥락의 질에 의해 그의 건축이 되살아나고 있는 것 같다.

이른바, 그것은 우리 동네가 가진 정겨움에 때로는 동네교회가 되고, 때로는 교회동네도 되고 하는 것도 같다. 물론, 이것은 다분히 작위적인 해석의 일부일 수도 있다. 하지만 최소한 그가 이루고자 하는 것들이 그렇게 악한 것이 아니라면, 되려 선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말이라면, 무조건 결과의 실체물만을 놓고서는 그것이 가진 보편화의 따짐만을 묻는 것은 일종의 헛뜸음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이 교회가 총체적으로 사회성의 담성을 지니고 있는 선한 것이라면 우리는 그의 하고자함을 구태여 즐겨보기보다는 오랫동안 주시할 수 있는 고안의 눈을 가져도 될 법하다.

끝으로 그의 교회를 그리는 데에 혹은 도움이 될까 하나의 행렬문제를 남겨 볼까한다. 이것이 구태여 공간의 매트릭스는 아닐 수 있다. 그냥 일말의 재미를 느끼는 흑세무민(?)의 문제라 생각해도 좋을 법도 하다. 하지만, 한번쯤은 곱씹어 볼만도 하다. 주관과 객관의 좌표라는 것을.

※다음의 행렬도가 가진 경우의 수는 몇 개 일까?

$$(1(2()1)2)$$

건축가란 이름

지금껏 필자는 고의적으로 교회건축에 있어 가장 중요한 사안일 수도 있는 십자가에 관한 말을 아꼈다. 그것은 이 글을 마치면서 당부적 말이 담겨있기 때문이다. 그가 그려낸 이 교회의 십자기는 한편으로는 소박하다.

fraction of Western academism. The issues suggested by Kwak, the coordination of the subject and the object, is not limited to the forms of architecture, but includes the people who occupy them. For example, the principle of becoming can be found in the irony that what people feel can be considered most objective and the object of architecture most subjective. In this view, the articulated yet modest fragments of the church seem to be integrated through the site's context - in other words, the architecture is vitalized by the quality of the site's surroundings.

The friendly and intimate atmosphere of the town makes the church the "town church," while the presence of the building makes the village a "church town." Of course, this interpretation may well be a result of one's own subjective views, but considering the intention of the architect, which is surely more virtuous than wicked, it would be too confining to judge the work only through the final result and reproach it with its commonness. If the building is a product of the creator's social consciousness, we should view it with a penetrative and affectionate eye.

To give the reader a clearer picture of the church, I would like to present a mathematical matrix - which is not necessarily one for the matrix of space:

$$(1(2()1)2)$$

How many set of numbers does this matrix provide? This may well be a coordinate between the subject and the object.

The Profession of an Architect

Until now, I have intentionally refrained from mentioning the issue of the cross, which may be the centering object of a religious facility. This was because I wanted to end this review with a word of request.

The cross Kwak has provided to this church is in a sense quite humble, yet there is a lasting quality to it. The metaphoric reflection of the cross's light and shadow makes us feel at heart the holy sacrifice made by God. While most other crosses of other churches, so eccentric and secular, shaped by

하지만 그곳에는 무엇보다도 지극함이 있다. 반사되어 은유되는 십자가의 빛과 그림자는 신의 희생을 고귀하고 아름답게 받아들이게 해준다. 핏발선 빨간 네온의 여타 십자가는 당시 처절했던 피내음을 연상시켜주는 과격함과 세속함이 묻어있다면, 이번의 교회십자는 그가 부활했음을 믿게 해주는 신성이 깃들여져 있는 것도 같다.

하물며, 그런 당연이 건축가에 의해 받아들여지기까지 이만 저만 만만찮은 일이 아니었을 성싶다. 건축가란 직업, 참으로 고달픈 것임에 틀림없다. 서비스업이 아닌 서비스업.

그러면서도 사회의 질을 가장 책임있게 담당하고 있는 이중적 희생과 책임 속에서 우리 건축가들은 항상 힘들었다. 국회의사당에서 의도에 없던 돌이 현역의 원에 의해 강요되었던 시절, 우리는 그때의 척박한 시절을 탕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그로부터 수십 년을 지나왔지 않았는가? 달라졌는가?

교회의 십자가가 다시 빨간 네온으로 교체될 것도 같다는 이야기를 귀뜸하여 들었다. 내일 모레 학생들을 데리고 교회를 구경 갈지도 모르는데, 빨간 네온의 십자가 간판을 보고 무어라고 이야기한담. 난감하다. 얼른 해결 말이 좀처럼 생각이 나질 않는다. 그냥 답답하다.

나가는 글

건축가 관재환은 유독 한국의 냄새가 짙다. 그래서 그의 고민과 귀추가 무척 기대된다.

이제 우리의 땅도 좋은 건축이 많이 있다. 그래서 건축여행이 즐겁다. 하지만 그것이 어디에서 많이 본 듯한 아쉬움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물론 좋은 것을 성하는데에 누구 누구 것이 무어 필요 있겠냐고 반문할 수도 있겠으나, 건축은 언어와도 같은 문화적 산물이다. 그리고 그것은 역사와 지역의 혼이 담겨져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우리화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국제주의자들의 건축 식민적인 횡포가 이만저만이 아닌 지금, 우리의 건축을 위한 고민은 어디쯤 와 있는가? 남발하는 서양의 건축적 사유가 우리도 모르는 새 우리를 길들이고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 한번쯤은 의구심을 품을 만도 하다.

슬며시 이번의 교회가 한국현대건축의 흐름의 장으로 포함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고개를 든다. ㄷ

the red neons, remind us of the bloody reality of the old ages, this one has the sacredness which hints us the resurrection of God.

It is evident that the path the architect has gone through to achieve this effect was not an easy one. The life of an architect has always been so - a service that isn't received by the general as such, yet is responsible so much for the cultural quality of the society. The weight of double sacrifice was further added with incidents like the demand of a politician to add a dome to the National Assembly building, which wasn't in the architect's plan. We had blamed that era for such disrespect - but now, decades past that times, has anything really changed?

I've come across a rumor that the cross of this church may be covered with a red neon, just like those of other churches. With a plan to revisit this place in a few days with my students, this came as a shock. I do not know how to explain this to my pupils if it actually happens.

Conclusion

There is a strong sense of what is truly Korean in the works of architect Kwak, which makes us all the more curious of his thoughts and future works. We may now proudly say that there are a great number of meaningful works of architecture in this land. The joy of traveling through this country is that much enhanced. On the other hand, it is true a number of works remind us of someone other's we have come across in the past. Some may argue that a good thing does not require to be classified into certain nationality, but architecture, like language, is a cultural heritage. It stores the spirit of a place and its history. Therefore, what is ours should truly be ours.

In an era where multinational style of architecture is dominant, we may be looking over too many issues of this profession. What we are accustomed to may be a thoroughly western way of interpreting architecture.

May this church mark a meaningful spot in the evolution of Korean contemporary architecture.